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일상 속 세계시민실천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전북, 세계시민교육

과 함께하다



새활용센터 다시봄 프로그램



사람의 마음에 담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소리새김

전시: 새로운 소리새김 (소리새김, 소리새김, 소리새김)
The Fall-Door



다시봄 시범기업입주 Open Studio

bàn

그때부터 소름이 '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은 '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은 '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은 '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반 후

전시: 그때부터 작품 전시
나눔: 그때부터 유작품



다시봄 시범기업입주 Open Studio



프리데코는 PRIDECO(프리데코)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뜻으로, 친환경품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친환경품을 위한 제품과 개발, 친환경의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프리데코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종이 종이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리데코는 그 안에서 환경과 동물, 어상의 상호연계를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주세요.

프리데코

체험: 배우신 프리데코 체험 16.17일 14:00 ~ 17:00

전시: 프리데코의 책 '우리를 둘러싼 불완전한 세상'

배우신전, 배후수익으로 만든 세상을 예코백 등

판매: 배우신전과 배후수익으로 만든 세상을 예코백, 프리데코 손수건, 머스캠퍼드 등



재활용을 넘어선 '새활용'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이곳에선

'시민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양성'

'시민 체험', '기획 전시'

'디자인 공모', '소재 개발 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새활용 프로그램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새활용 프로그램으로는

병뚜껑 사출 체험과 자원 순환 교육이
함께하는

'플라스틱 원정대',

집에서 사용하는 유리 제품에
샌딩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리의 재발견'

재활용 프로그램 2

사용하지 않는 천과 옷가지로
패브릭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 패브릭 디자이너',

비닐 봉투로
카드 지갑과 조명을 만드는

'비닐클링'

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정대'

이곳에서 체험가능한 '플라스틱 원정대'는

새활용의 의미와

일상 속 실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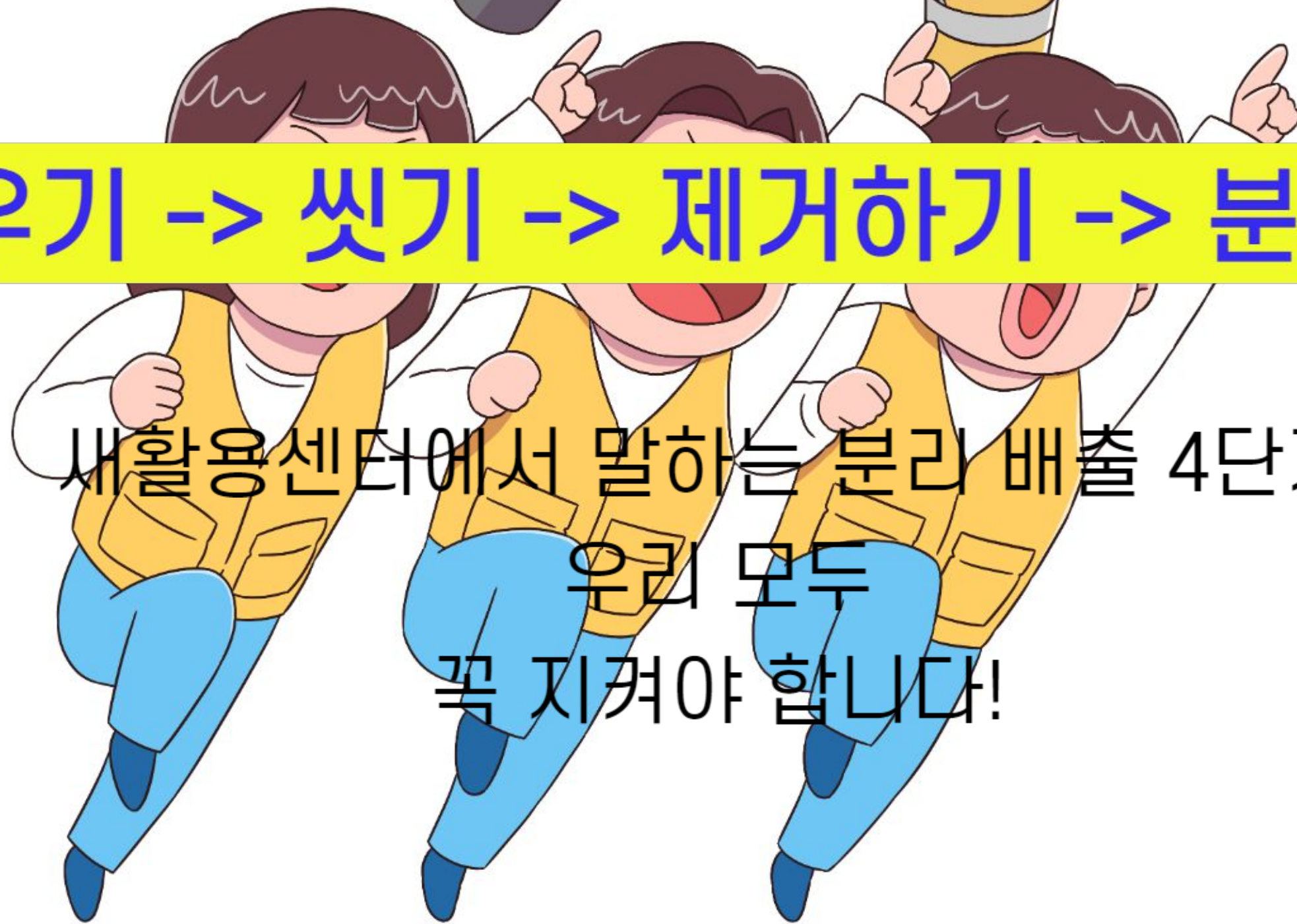
마음 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분리 배출 4단계

비우기 -> 씻기 -> 제거하기 -> 분리하기



새활용센터에서 말하는 분리 배출 4단계!

우리 모두
꼭 지켜야 합니다!

재미있는 세계시민 이야기!

간단한 **분리 배출과**

일상 속 버리긴 아깝고

방치된 재료로 만드는 **세계시민교육!**

올바른 분리 배출로 먼저 시작해봐요